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와 찬양 -시편-

시편 62:1-6, 골로새서 3:15-17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명절 바쁜 기간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이 복음화되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화해시키는 응답을 받도록 명절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영혼에 힘이 되고 삶에 응답이 되는 성취되는 메시지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생활하셨는데 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다. 원래 예수를 안 믿고, 부모님 따라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염할 분이 없어서 본인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 시체 염을 할 때는 불신자들의 시체였는데, 믿는 분의 시체는 처음으로 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달랐다는 것이다. 그 시체를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천당이 정말 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체도 진도를 할 수 있다. (웃음) 얼마 전에 전국 장의사협회 회장을 만났는데, 젊은 분이였다. 알고 보니 아버지 때부터 장의사였다고 한다. 성품은 참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쭙 보았다.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의 시체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렇습니까?”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시체를 보면, 80~85%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게 다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이 모인 것을 보면, 가문의 95%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다음에는 영접을 시키려고 한다.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술도 뿌리고 그러지 않나? 그런데 이게 원래 중국에서 온 풍습인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풍습을 하지 않는다. 원조는 안 하는데 대한민국만 열심히 한다. (웃음) 무덤에 술 뿌리고 하는 의식은 어디에서 왔겠는가? 성경에 보면 ‘전제’라는 제사가 있다. 이것이 포도주를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소주를 뿌리면 안 되고 붉은 포도주를 뿌려야 한다. (웃음) 이게 변질되어서 지금도 이상한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원래 한 뿌리였던 세계 모든 민족이 흩어지면서 풍습이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팔죽 뿌리는 것도 보면 꼭 십자가 모양으로 뿌리고 그러지 않나. 근본을 놓친 풍습들이다. 여러분은 근본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조상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기를 축원한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시와 노래, 예술 작품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만든 작가 개인의 마음과 영혼은 매우 황폐한 경우가 많다. 나는 음악, 예술을 하는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보았는데, 한결같이 영혼, 개인, 삶과 가정이 황폐해져 있었다. 전문가일수록 그랬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편의 시와 찬양은 삶과 영혼, 가정과 개인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시편 가사를 가지고 작곡한 찬양들을 많이 들었는데, 영혼을 100배로 치유해 주는 것 같다. 찾아보니까 150편의 시편 중에서 작곡이 된 것은 50편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편은 우리가 작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시편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런지, 많은 시와 노래 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카톡방에 시편 찬양 문치를 올릴테니, 명절에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란다. 전체 카톡방에서는 빠져나가시지 말고. (웃음)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람’이라고 하는데, 찬양들이라는 말이다.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두고 ‘반주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또 붙였다. 원래 이것이 노래였다는 말이다. 그냥 가사가 아니라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 시편 대부분은 찬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작곡도 해 보시면 좋겠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개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금이야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지만, 옛날에는 양피지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편의 작가는 여러 사람인데, 다윗이 73편을 썼고, 모세와 솔로몬의 작품도 있다. 특히 고라의 자손들, 아삽과 여두둔, 헤만 등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들은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의 전문가들이었다. 지난주에 우리 채운이가 찬양을 했지만, 서운이, 채운이, 신영이 세 자매가 다 찬양도 율동도 잘 한다고 한다. 가문이 그렇게 음악성이 뛰어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란다. 우리 조카가 석사 과정 공부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박사까지 꼭 공부하도록 권유했다. ‘석사도 겨우 하는데 박사까지 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하기에, 공부하지 말고 학교만 다니라고 했다. (웃음)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부를 놓친 사람이 우리 가문에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두고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것을 몰라서 놓쳤다.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공부를 잘 한 사람이 꼭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못했던 사람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또한 가문과 후대에 준비하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점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구절을 283번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 160번이 시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신약시대, 복음 시대에 와서도, 시편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는 이야기다. 시편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했는데, 시편에 담겨 있는 내용의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시편이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맥락 상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특히 시편은 ‘시’ 작품이니까 운율이 있다. 그것도 고어(古語)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읽는 것이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예 히브리어로 읽어야 한다고 해서, 한 번 나도 들어보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려웠지만, 과연 운율이 있었다. 듣는 재미가 있었다.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니까 다섯 시간 반이 걸렸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1. 시편의 내용들

(1) 시편에 담긴 내용들이 무엇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시8:3을 보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냥 읽고 넘길 수도 있는데,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이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다. 마침 주석에 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식이나 월식 때를 생각해 보라. 달의 크기가 너무 정확하다. 딱 태양이나 지구를 가릴 만큼의 크기다. 그게 우연이라면 더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달 탐사선이 달 지표를 조사해 보았는데, 불신자들이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조사를 한 것이다. 무거운 물건을 달에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니까, 그 음파를 반사시켜서 내부 물질을 조사한 것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것이, 달이 속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껍데기가 아주 강해서, 일정 두께는 뚫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뚫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고백하기를, 달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원리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다. 조수간만의 원리가 왜 생겼는가? 달의 인력 때문이다. 달이 약간만 가까이 있었으면 날마다 쓰나미가 오게 되어 있다. 달이 조금만 멀어도 바닷가가 썩어 버린다. 달이 반사해 주는 태양 빛이 없으면 너무 추워지고, 그 빛이 너무 많으면 더워진다. 그러니까 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2)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르고 축복된 길인지 시편은 알려주고 있다. 시1:1을 보라. 구원을 받고 끝난 게 아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시1:2이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 한 마디가 기본 나쁘다고 집단 폭행을 가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시11:5에 보면,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폭력을 버려라. 마음, 육신, 언어의 폭력을 버려라. 하나님은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내용이 그래서 시편에 들어있는 것이다.

(3) 시편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고백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러한 주제로 쓰인 시가 전체의 1/30이나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원수도 별로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대적이 많고 전쟁이 많았는가. 아들까지도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니까 갈등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인생의 갈등과 고통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에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사정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들이 많이 있다. 시편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만으로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자녀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치른다고 생각해 보자.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원망하고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기도하셨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안심이 되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 따져도 좋다. 원망해도 좋다. 시편이 그 내용이다.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해 보라.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시 70:1을 보라.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한 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의 치유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문제가 이 한 마디로 해결된다.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읽고 기도해 보라.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4) 시편 안에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다. 지난주에 찬양대 헌신예배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한다.

(5)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상세하게 많이 담겨 있다. 왕이신 예수님, 메시야이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예언도 많이 들어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22:1을 보라.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 아닌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것을 인용하신 것이다. 시22:16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시22:18을 보면,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이것이 마27:35, 눅23:34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시편은 너무도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6) 시편은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다. 시65:4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분께 오신 것이다. 시63:3에는 죄론과 속죄론이 나타나 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항상 죄가 우리를 이기지 않는가. 나는 그런 것 같다. 그런데 힘을 주는 말씀이 나온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리이다.” 죄가 우리를 이겼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다.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다.

2. 시편의 역할

구약 당시에는 시편이 성전과 국가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찬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1)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새가족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도 그러하다.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시편 속에서 배우고 갱신할 수 있는 것이다.

(2) 굉장한 중요한 부분인데, 시편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생각을 속 시원하게 표현해 준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악한 사람도 있다. 어쩌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나 싶다. 그럴 때마다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게 된다. 시69:28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다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라. (웃음) 성경 읽는 방법이다. 저주 중의 최고 저주인데, 그대로 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방법인 것이다. 우리가 치유되고 성숙되면 그때 비로소 원수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바란다.

(3) 시편 속에서 실제로 문학적인 부분에서도 재능을 가꿀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을 보며 우리 신앙의 로드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시84:10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적인 가치관을 바꾸는 내용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이익을 찾고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세상 욕심을 성취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몸 된 성전에서 봉사하며 지내는 것이 더 성공의 삶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한다면, 능동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 미션을 드리려고 한다.

(1) 몇 년 전 시편 메시지를 하면서도 시를 한 번 써보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시간 나는 대로 시편을 읽어 보시기 바란다. 매일 오전에 성경 읽기 팀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많이 읽으신 것 같다. 복음운동하는데 성경은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응답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었네요?’ 하면서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이 있다. 시편도 한 번 읽어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란다. 시편 속에서 나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나의 말씀을 찾아보라. 나의 영혼, 마음, 삶을 치유하고 힘을 줄 수 있으며 방향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2) 그리고 직접 나의 시편을 써 보라. 어떤 장로님은 아예 시인으로 등단하신 분도 있다. 태영아부에서는 강단메시지를 전부 곡으로 만들어서 함께 부르고 듣고 그러더라. 어떤 분은 아줌마인데 랩까지 하시기에, 내가 듣고 깜짝 놀랐다. 후대 키우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신다 싶어서 호모했다. (웃음) 작곡도 해 보고, 악기도 배워 보라. 시편150편은 말씀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이다.” 가수를 키우는 우리 랩밴트도 있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제자를 세우시기 바란다. 그 현상이 얼마나 어려운가. 인기를 위해서 성을 상문화해서, 딸들의 옷을 벗겨 버리는 그런 현상이다. 복음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예쁘고 잘 생긴 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전도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옛그제 송대관 씨가 간증을 한 것을 들어보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교회에서 클라리넷 팀, 오케스트라 팀이 와서 장소를 빌려서 연습도 하고 있다. 오카리나 팀, 색소폰 팀도 교회 안에서 연습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역자실에 있으면 바로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힘들었는데, (웃음) 이제는 곧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나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금요일에 찬양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은혜롭다. 주일에도 매일 다섯째 주에는 찬양의 축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다. 축제의 무대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 어떤 교회는 매주 강단메시지 전에 연극을 하더라.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싶었다. 끊임없이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야 한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향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간증집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시도 쓰고 작곡도 해 보고, 그림도 그려 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후대에게 남겨 보자.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문화로 세상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더 멋진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곡은 불신자도 다 좋아한다. 그렇게 정복을 하는 것이다. 댄스, 음악, 영화 같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의 사위가 영화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국에서 크게 투자를 받아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좋은 작품을 남겨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해야 한다. 게임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게임 중에서도 성경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큰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족과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공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